

과학기술은 인류에 어떤 영향을?

전북대서 국제 동아시아과학사 회의 개최... 20개국 350명 주제발표·과학문명 역사 조망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문명 간 과학기술 교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인 답변을 시도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8월 19일 개막해 23일까지 1주일간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주최로 진수당 일원에서 '국제 동아시아 과학사 회의'가 개최된다.

이 학술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올해 전주에서 15회째 대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번 대회에는 20여개 국가에서 350여 명의 국내외 동아시아 과학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명을 과학기술의 키워드로 들여다본다.

이번 학회에서 기조강연자 중 김남일(경희대학교) 교수가 '동의보감'을 통해 한국 의학과 인물을 소개하면서 현대까지의 발전을 지속하는 비결을 조망하고, 고베대학 츠카하라 토고 교수는 일본에서 바라본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조화를 핵심 개념으로, 동아시아의 근대 한 나라의 주도에 의해 도래한 것이 아니라 다중심성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장바이춘(중국과학원) 교수는 농업에서 물의 사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이 한 덩어리로 발전하고 문화해간 역사 상황을 흥미롭게 전한다.

그리고 리지엔민(대만 중앙연구원) 교수는 최근 발굴된 리오구안산동의 고대 경관인형유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주최로 진수당 일원에서 '국제 동아시아 과학사 회의'가 개최됐다.

물을 분석해 고대인의 신체와 힘, 근육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보이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프란체스카 브레이(영국 에딘버러대학교) 교수는 1830년대 후반 영국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싼 수입품 차(茶)를 대신 하기 위해 아삼에서 차를 재배하는 실험과 그 과정을 전한다.

발표 주제 중 특히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인쇄술의 동서문명 간 교류의 역사, 항해의 역사와 동아시아 지도의 발전, 고구려 고분에서부

터 나타나는 수준 높은 천문학의 세계교류 등도 포함돼 그 간의 상식을 깨는 문명 간 교류와 전승의 역사를 세계인과 공유하게 된다.

한편, 일본의 양심적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일본 731부대의 만행을 추적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분투해 온 NPO 731부대-세균전 자료센터의 두 명의 변호사가 한국을 찾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 투쟁 등의 경과를 소개한다. /정은성 기자



사단법인 들레가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창단했다.

“정음의 청소년 문화, 우리가 만들어요”

들레, 문화기획단 '네온' 창단 지역청소년 문화 활성화 기대

사단법인 들레가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창단했다.

청소년 문화기획단은 사단법인 들레의 정음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하나인 상상비당 후후의 일환이다.

문화기획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면접을 통해 10명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정음 청소년의 문화는 정음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는 취지 아래 활동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남 기획단의 창단식을 직접 기획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 회의를 통해 단체명을 '네온NE:ON'으로 선정하고 '정음을 문화로 밝게 빛나도록 하겠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네온의 단체 유니폼을 단원들이 직접 디자인해 제작했다. 한편해 지난 11일 있었던 창단식에서는 사단법인 들레 안수용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식과 축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네온 단원들은 자기 소개와 포부를 발표했다. 이어 청소년 문화기획단 1기 창단 선포식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들레 안수용 이사장은 "기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며 이것을 청소년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일시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자로서 책임감과 지구력 또한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 문화기획단 네온NE:ON은 (사)들레와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김대환기자

남원시, 삼동굿놀이 재연행사 성황리에 마쳐... 마을의 무사와 풍년농사 기원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향토축제인 삼동굿놀이 행사가 최근 성황리에 재연돼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이원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들과 재의 향우들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삼동굿놀이보존위원회가 주관한 이번행사는 매년 백중날에 세 동자를 앞세우고 입신양명 및 마을의 무사와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올해 서른일곱번째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밧기, 합굿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화합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하여 주민들이 즐거운 하루를 만끽 했다.

삼동굿놀이는 일찌기 고려 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괴양마을 뒷산인 계룡산이 지네모양으로 마치 닭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매년 3명의 동자가 지네를 밧아주는 풍속에서 유래했다.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



남원시 보절면에서 최근 향토축제인 삼동굿놀이 행사가 성황리에 재연됐다.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을 묘사되는 게 특징으로 잡귀를 쫓아내어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고, 한해 농사일에 수고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을 띠고 있다.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

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 올해는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남원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주민주도, 지역민 화합행사로 이루어져 뜻깊은 재연행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공모... 내달 18일까지 접수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연다. 총 3개 부문(예비관광벤처, 관광벤처, 재도전)이다.

예비창업자·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예비관광벤처사업,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는 관광벤처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하면 된다.

서류심사 시 지역 창업자(기업)에게 가점 3, 청년 창업자(기업)에게는 가점 1을 부여한다. 예비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광상

품·서비스 개발비 최대 4000만원과 기업별 컨설팅·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광벤처기업은 홍보·마케팅비 1050만원과 국내의 판로 개척, 기업 간 협업사업 등을 지원받는다.

재도전기업이 되면 관광상품·서비스 재개발비 최대 4000만원과 기업별 재창업 컨설팅·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9월18일까지 접수한다. /뉴스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